**4월 편의점** – 한서령 에피소드(오후)

3월에서 4월로 바뀌었지만 익숙한 학교풍경, 똑같은 건물... 매일 똑같네.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다르지 왜냐면... 공강이 생겼으니까!

생각해보니 점심시간이네 얘.. 점심 먹었으려나? 좀 바쁠거같은 느낌인데...

....

....

....

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...

나는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싶었지만 친구가 바쁜 거 같아서 굳이 다시 걸지는 않았다.

(문자음)

*나 지금 동기들이랑 팀플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 바쁘다.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~*

(한숨쉬며)하아... 예감이 틀리질 않네... 생각해보니 요즘도 과제하는 애들이 한창이구나 다시 집가기에는 거리도 있고   
**자취하다보니 요리하는 것도 귀찮은데... 혼자 편의점이라도 들릴까? 그냥 적당히 때우던가 해야지.**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

공강이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기분 좋고 여유 있게 편의점으로 들어갔다.

**어서오세요~**

알바생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삼각김밥 코너 쪽을 가서 오늘은 뭐가 나왔나부터 확인했다.   
(찾았다는듯이) ..**오늘은 참치김치김밥이다!**

계산대로 가보니 한 여자가 대낮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딸기우유를 계산하고 있었다. 편의점을 오는데 뭐하러 저렇게 입고 온거야?

……….

근데 뭔가 익숙한 실루엣인데 설마....

**…(뭔가를 고민하는 표정)**

(한서령인거 알아챔) 그 때 알바했을 때 다짜고짜 사귀자고 했던 그 사람 아니야? 진짜 오늘따라 불안한 예감은 죄다 맞네..

**..!**

**너 그때 그..**

**사람 잘못 보셨습니다…**

**아, 뭐래. 그때 알바생 맞잖아!**

하아, 이 사람이랑은 정말 엮이기 싫은데..  
-대충 얘기중-----------

**어! 근데 너 여기 앞 00대학교 다니니?**(어떻ㄱㅔ 아는것인지 자신이 스토킹을 당한 것인지 과대망상증으로 주인공 벙찜)

(알바) 죄송한데 뒤에 사람도 계산을 해야해서요

**저기, (담배이름)랑 라이터 하나 주세요.**

그녀는 내가 계산을 하지 않자 급하게 담배를 들고 편의점을 나갔다.

정신을 차리고 보니 뒤에는 계산을 기다리는 손님들과 짜증난 표정을 보이는 알바생이 있었고, 나는 빠르게 사과를 한 뒤 자리를 나왔다.

…

- 주인공은 담배를 피는구나 생각하다가 안 필 거처럼은 안 생겼다고 생각을 고침-

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

-편의점 옆 골목-  
(한서령이 담배를 꺼내서 뜯는즁)

물어보고 싶은게 많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인공

…

..콜록

뭐부터 물어봐야 하지라는 잡생각이 났지만, 멀어지는 등 뒤로 달달한 담배향이 났다.